

제5강 서사문과 묘사문 1

(1교시)

▲ 글의 네 가지 기술양식

① 설명-독자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양식

-> 정의, 비교와 대조, 예시, 분류와 구분, 분석과 같은 방식 활용.

② 논증-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양식.

-> 설명과 설득의 단계 거침. 논거비판, 일반화, 귀납적 전개, 연역적 전개, 유추에 따른 전개로 이루어짐.

③ 묘사-구체적인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양식.

-> 수사법이 동원됨. 작가의 주관적 판단과 의도가 내포될 수 있음.

④ 서사-행동이나 사건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양식.

-> 신문 기사를 제외하면 순수한 서사문이란 존재하기 힘들.

▲ 소설문장의 서사문과 묘사문

① 서사문과 묘사문

「소설을 쓸 때 우리가 이용하는 문장의 양식은 대체로 서사와 묘사이다. 더러 설명을 하기도 하고 드물게는 논증을 써먹기도 하지만 그러나 소설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서사와 묘사이다. 서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밝히는 글이다. 묘사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글이다. 서사는 시간의 흐름을 기술하고 묘사는 공간의 양상을 기술한다. 서사는 시간적인 글쓰기이고 묘사는 공간적인 글쓰기이다. 서사는 움직임이나 행동에 대해 말해주고, 묘사는 모양이나 양상에 대해 그림을 그려 보여준다. 서사는 동사를 필요로 하고 묘사는 형용사를 필요로 한다.」

「작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묘사 위주의 소설을 쓰거나 서사 위주의 소설을 쓰기는 하지만 묘사만으로 된 소설, 서사만으로 된 소설은 없다. 묘사만으로 일관된 글은 실감을 자아내지만 지루해지기 쉽고, 묘사가 빠진 채 서사만으로 씌어진 글은 속도감을 주는 대신 스토리 위주라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다. 묘사와 서사, 대화와 설명이 서로 섞여서 소설의 문장을 이룬다. 심지어는 한 문장 안에 이 요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기도 한다. 따라서 묘사나 서사나를 따지고 신경 쓰고 하는 일은 무의미하다. 따지고 신경 써야 할 일은 좋은 문장을 쓰는 일이다.」

(소설가 이승우)

→ 소설의 정의

· 작자가 자기의 눈을 통해 본 현실적 인생을 구성적(構成的)으로 서술한 창조적 이야기(네이

버 백과사전)

- 상상력과 사실의 통일적 표현으로써 인생과 미를 산문체로 나타낸 예술(국어사전)
- 소설은 가공의 역사이다.(헬렉, 위렌)
- 소설이란 적당한 길이의 산문으로 된 가공적인 이야기다.(E. M. 포스터)
- 소설은 이야기, 즉 인물에 대하여 꾸며 놓은 이야기다.(P.위렌 C. 브룩스)
- 소설이란 산문체의 가공적인 이야기에 의한 인생의 해석이다.(백커)
- 소설은 인생의 회화이다.(P. 러복크)
- 소설은 인생의 해석이다.(W. H. 허드슨)

- **소설** = 이야기 = 사건 + 인물
- **서사** = 시간적인 글쓰기, 동적, 사건을 제시하는 가장 적합한 방식
- **묘사** = 공간적인 글쓰기, 정적, 인물을 제시하는 가장 적합한 방식
- 문장 속에서 둘의 관계는 정확히 구분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서사문’, ‘묘사문’이라 하면, 그 안에 서사 또는 묘사의 방법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는 뜻.
- 서사문은 설화, 전설, 동화, 소설 등의 여러 문학 갈래를 포함하고 있으나, 앞으로 본 강의에서 말하는 서사문은 소설문장으로서의 좁은 의미를 지닌 개념임.

② 서사문과 묘사문의 예

-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 :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이므로 전체적으로 서사문의 특징 강함.

예문1)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질척이는 독길을 향해 올라갔다. 그가 독 위로 올라서더니 배낭을 다른 편 어깨 위로 바꾸어 메고는 다시 하반신부터 차례로 개털모자 끝까지 독 너머로 사라졌다. 영달이는 어디로 향하겠다는 별 뻘죽한 생각도 나지 않았고, 동행도 없이 길을 갈 일이 아득했다. 가다가 도중에 헤어지게 되더라도 우선은 말동무라도 있었으면 싶었다. 그는 멍청히 섰다가 켜걸음으로 사내의 뒤를 따랐다. 영달이는 독 위로 뛰어올라갔다. 사내의 걸음이 무척 빨라서 벌써 차도로 나가는 샛길에 접어들어 있었다.」

(황석영 「삼포 가는 길」에서)

설명)

고향인 삼포를 찾아가는 정씨의 발걸음은 빠른 반면, 일자리를 찾아가는 영달이겐 말동무가 필요할 뿐. 그래서 정씨를 따라잡기 위해 뛰어감.

서사문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시간, 움직임, 의미가 모두 담겨있다.

예문2)

「가물거리는 지붕 위로 간신히 알아볼 만큼 가느다란 연기가 얇게 퍼져 흐르고 있었다. 교회의 종탑도 보였고 학교 운동장도 보였다. 기다란 철책과 철조망이 연이어져 마을 뒤의 온 들판을 둘러싸고 있는 것도 보였다. 군대의 주둔지인 듯했는데, 마을은 마치 그 철책의 끝에 간신히 매어달려 있는 것 같았다.」

(황석영 「삼포 가는 길」에서)

설명)

읍내가 바라보이는 산등성이에서 그들의 눈에 비친 풍경을 묘사한 부분

: 그들이 도착한 읍내가 군부대에 목숨줄을 대고 사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묘사문은 장면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한편, 많은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다.

예문3)

「백화는 이제 겨우 스물두살이었지만 열여덟에 가출해서, 쓰리게 당한 일이 많기 때문에 삼십이 훨씬 넘는 여자처럼 조로해 있었다. 한마디로 관록이 붙은 갈보였다. 백화는 소매가 해진 헌 코트에다 무릎이 튀어나온 바지를 입었고, 물에 불은 오징어처럼 되어버린 낡은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비탈길을 걸을 때, 영달이와 정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양쪽에서 잡아주어야 했다.」

(황석영 「삼포 가는 길」에서)

설명)

서사가 중심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기도 어렵고 묘사가 중심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서사와 묘사는 완벽하게 나뉘어지지 않는, 독립적이기 보다는 교집합의 영역이 큰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대개의 소설문장은 서사와 묘사가 얹혀 이루어진다.

(2교시)

▲ 서사문 쓰기

① 서사

가. 필수 요건 - 이야기의 내용, 화자

나. 구성 - 사건이라는 내용과 서술이라는 형식

다. 정의 - 서사 행위의 결과, 일련의 현실, 또는 허구적 사건들과 상황들을 시간 연속을 통해 구성해 낸 것

라. 종류

- 언어적 서사 - 소설, 서사시, 극, 신화, 전설, 역사 등
- 비언어적 서사 - 영화, 연극, 발레, 오페라 등

② 서사문 쓰기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待合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琉璃窓마다
툇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그믐처럼 멎은 줄고
멎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줌의 툇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內面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靑色의 손바닥을 불빛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歸郷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담배 연기 속에서
싸룩 싸룩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和音에 귀를 적신다
子正 넘으면
낮설음도 뼈아픔도 다 雪原인테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呼名하며 나는
한 줌 툇밥의 불꽃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곽재구 「沙平驛에서」 전문)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별로 복잡한 내용이랄 것도 없는 장부를 마저 꼼꼼히 확인해 보고 나서야 늙은 역장은 돋보기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일어선다.

벌써 삼십 분이나 지났군.

출입문 위쪽에 붙은 낡은 벽시계가 여덟 시 십 오분을 가리키고있다. 하긴 뭐 벌써라는 말을 쓰는 것도 새삼스럽다고 그는 고쳐 생각한다. 이렇게 작은 산골 간이역에서 제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 완행 열차를 보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님을 익히 알고 있는 탓이다. 더구나 오늘은 눈까지 내리고 있지 않는가.

역장은 손바닥을 비비며 창가로 다가가더니 유리창 너머로 무심히 시선을 던진다. 건널목 옆 외눈박이 수은등이 경충하게 서서 홀로 눈을 맞으며 희뿌연 얼굴로 땅바닥을 내려다보고 있다. 송이눈이다. 갓난아이의 주먹만한 눈송이들은 어둠 저편에 까맣게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수은등의 불빛 속에 뛰어 들어오면서 뚱그렇게 놀란 표정을 채 지우지 못한 채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굉장한 눈이다. 바람도 그리 없는데 눈발이 비스듬히 비껴날리고 있다. 늙은 역장은 조금은 근심스런 기색으로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대어 본다. 하지만 콧김이 먼저 재빠르게 유리창에 달라붙어 뿌연 물방울을 만들었기 때문에 소매로 훔쳐내야 했다. 철길은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었다.」

(임철우 「사평역」에서)

· **시** : 주로 묘사문이 우세한 문학갈래, 정적

· **소설** : 주로 서사문이 우세한 문학갈래, 동적

창작활동을 하려면 다른 사람의 명구를 인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자기만의 문학 세계를 창조해 나가도록 하자.

▲ 실습하기

(묘사문 중심의 시를 서사문 중심의 소설로 고쳐 써 보는 것은 서사문을 익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예문을 서사문 위주의 글로 고쳐 써 보세요.)

예문1)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내일 신문에 코를 박고
방금 자신들이 떠나온 세상의 풍경들을 읽어내며
간단없는 생을 수군거립니다
권태롭듯이 아버지가 실내 낚시터에서 돌아오지 않고
형은 노래방에서 하루종일 살았습니다」

(함성호 「56억 7천만 년의 고독」에서)

(설명)

· **내일 신문**이라는 낱말에 주의할 것. (내일자 신문을 가리킴, 시간적 배경은 늦은 오후 혹은 저녁나절)

· **화자의 위치 변화**를 고려할 것.(아버지가 돌아오지 않고 형이 노래방에 종일 있었

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화자가 집에 돌아가 있어야 함. 지하철->집으로 이동)

예문2)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밤은 폭폭 눈이 나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폭폭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폭폭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백석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에서)

(설명)

-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된 계기, 술집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고려**
-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라는 구절에 유의(**조사 사용**에 있어)

예문3)

「시흥에서 소사 가는 길, 잠시
신호에 걸려 버스가 멈췄을 때

건너 다방 유리에 내 얼굴이 비쳤다

내 얼굴 속에서 손톱을 다듬는, 앓된 여자
머리 위엔 기원이 있고 그 위엔

한 줄 비행기 지나간 흔적」

(신용복 「소사 가는 길, 잠시」에서)

(설명)

명백하게 주어진 **사실들을 이용**할 것(시흥에서 소사로 가는 길, 버스에 타고 있는 화자, 다방에서 손톱을 다듬는 여자 등등)

(다음은 3번 예문을 서사문 위주로 고쳐 쓴 글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고쳐 쓴 글을 비교해 보세요.)

「버스가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튼다. 그러자 버스 앞창을 통해 비쳐들던 햇살이 내가 앉은 창가로 슬그머니 건너왔다.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맞은 편 도로 가에 한여름 늙은 개처럼 늘어져 있는 낡은 건물들을, 그 이마에 간당간당 매달린 간판들을 본다. 바람도 없는데 간판이 기우뚱거린다. 정회 미용실이 지나가고 맛나분식이 지나간다. 초등학교, 그 기다란 담도 지나가고 담이 끝나는 곳 과속방지턱에서 버스는 사레들린 사람처럼 덜컹거린다. 햇살은 아까보다 조

금 더 자리를 옮겨 내 왼쪽 불과 직각으로 날아온다. 얼마나 달렸을까. 시흥에서 함께 버스에 올라탔던, 보통이를 가슴에 꼭 껴안고 있던 중년의 아낙은 보이지 않는다. 그녀가 앉아있던 좌석 밑에는 껌종이가 널브러져 있다. 햇살이 다시 버스 앞창으로 자리를 옮기더니 맞은 편 창가로 급히 몸을 비튼다. 이 버스는 좁은 길로만 다닌다.

신호에 걸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 밖 풍경을 본다. 손바닥만한 하늘에는 비행기 지나간 자국이 남아있다. 그 아래 투박한 선은 낡은 건물 옥상이 그려낸 선이다. 건물 이층에 매달린 형제기원 간판 역시 덜컹거린다. 마치 자신의 배 밑에 깔린 소사다방 간판을 지분거리듯.」

★ 과제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선정하여 원고지 20매 내외의 서사문 위주의 글로 바꿔 써 보세요. 80매~100매 정도의 한 편의 소설로 써 보는 것도 좋습니다.